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2009년 6월 20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루드비나
다음주 독서: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김현숙 엘리사벳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교무금: \$
합 계: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월 3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6월 26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안젤라 씨는 신혼 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에 신경이 예민해졌던 겁니다. 직장 때문인 줄은 알고 있지만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성당에 갔다가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엉뚱 화를 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남편이 오지 않는 날이면 늘 그렇게 성모상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설마, 성모님께서 듣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를 듣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성모상에서 “참아라!” 하는 소리들 들은 것입니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살아 계시는 성모님을 그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그 한 사람뿐일는지요? 성모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이기에 입을 닫고 있을 뿐입니다.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상대를 탓하지 않는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듯 열려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성모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이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모님께 나아가 평화를 안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복음 계속>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제1독서> 이사야서 61,9-11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화답송

◎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기뻐 뛰고,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을 높이 드나이다.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에, 제 입은 원수들을 비웃나이다. ◎
○ 힘센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던 이들은 힘차게 일어서나.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더는 굶주리지 않는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 간다. ◎
○ 주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저승으로 내리기도 저승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열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
○ 주님은 비천한 이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이를 찻더미에서 들어 높이시어, 존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히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 님, 당신은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 알렐루야.

+ 루카 2,41-51

복음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를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영성체송]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공이 되새겼네.

[오늘의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2 주일]

2009년 6월 21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루드비나
다음주 독서: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김현숙 엘리사벳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교무금: \$
합 계: \$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월 3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6월 26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돌풍은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입니다. 순식간에 호수는 파도에 휩싸이며 배를 삼키려 듭니다. ‘예사 바람이 아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직감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스승님은 주무시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 뒤집힐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빠지면 죽는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적의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인간적 계산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스승님의 꾸중은 단순합니다. ‘인간적 판단’의 포기가 그렇게도 두려우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늘의 힘을 목격했던 이들입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었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과 함께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생각해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주신다는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힘입니다. 불가능을 느낄 때 우리를 일으켜 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스승님의 질책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죽음의 힘까지 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1 독서> 욥기 38,18-11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제 2 독서> 코린토 2 서 5,14-17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화답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 마르코 4,35-41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